한 놀 091792　마가에 의한 Gospel.　32*23=736

1:1 Χριστοῦ [υἱοῦ θεοῦ] {C} ℵ*, Θ, 28c, al 등에 υἱοῦ θεοῦ가 없는 이유는 nomina sacra (신성한 이름들)의 어미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필경사들이 못 보고 빠뜨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책 제목들이나 준 제목들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가끔 필경사들도 압도당하는) 유혹이 항상 있었다. υἱοῦ θεοῦ를 입증하는 데에 있어 A, B, D, W, al 등의 증거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단어들이 모두 탈락되었다는 것은 현명한 생각 같지 않다. 그러나 짧은 독법이 오래된 독법이라는 사실과 이 독법을 필경사가 확대시켰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기로 했다.

1:2 ἐν τῷ Ἠσαΐᾳ τῷ προφήτῃ {A}
2절과 3절의 인용문은 복합적이다. 첫 부분은 말3:1에 있는 것이고 두번째 부분은 사40:3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경사들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란 단어들(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열, 가이사랴 계열 등에 속하는 대표적인 초기 증거 자료들에서 발견된 독법)을 "예언자들의 글에"란 좀더 이해하기 쉬운 도입 공식으로 변경시킨 이유를 찾아내기가 쉽다.

1:4 [ὁ] βαπτίζων ἐν τῇ ἐρήμῳ καὶ {C}
요한은 "세례자" (ὁ βαπτιστής는 마태복음에서 7회 누가복음에서 3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의 6:25과 8:28에서 나타난다)로 언급한 것이

공관복음에서 지배적인 용법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βαπτίζων 앞에 정관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 첨가된 이유를 설명하기가 더 쉽다.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 안에서 καὶ 가 없는 이유는 ὁ βαπτίζων을 하나의 제목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1:8 ὕδατι {B} 필경사들의 경향이 ὕδατι 앞에 ἐν을 첨가시킨 것으로 보인다(ἐν ὕδατι란 독법이 있는 마3:11과 요1:26의 평행본문을 비교하라).

1:8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A} 희랍어 사본 증거(번역본들의 증거는 이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ἐν과 같이 쓰인 독법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압도적으로 기울어졌다. 여러 증거 자료들 안에 καὶ πυρί가 있는 것은 마3:11과 눅3:16에 있는 평행구절에 영향을 받아 첨가된 것임을 보여준다.

1:11 ἐγένετο ἐκ τῶν οὐρανῶν {C} 동사가 생략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에 있는 καὶ ἰδοὺ φωνὴ ἐκ τῶν οὐρανῶν λέγουσα (마3:17)란 구절을 부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ἠκούσθη와 함께 쓰인 독법(Θ, 28, 565, al)은 다른 두 독법들 중에서 하나를 필경사가 고쳐서 쓴 것임이 분명하다.

1:14 εὐαγγέλιον {A} τῆς βασιλείας가 삽입된 ~~것은~~ 경우는 필경사들이 희귀한 마가적 구절을 상당히 흔하게 사용된 표현인 "하나님의 나라" (참조 15절)와 일치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이다.

1:21 εἰσελθὼν εἰς τὴν συναγωγὴν ἐδίδασκεν {C} εἰσελθὼν이란 단어가 뒤에 있는 εἰς 때문에 사본 작업시 우연하게 탈락된 것인지(결과적으로 ἐδίδασκεν은 εἰς τὴν συναγωγὴν 앞으로 자리를 변경함), 아니면 희랍어에서 어색한 구문이라고 여겼던 것(εἰς τὴν συναγωγὴν ἐδίδασκεν)을 고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삽입시킨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사본 작업시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공평하게 고려하면서 위원회의 대다수는 외적 증거(A, B, D, W, Θ, f^1, ⟨33⟩, 700, al)가 우세하게 지지하고 있는 독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결정했다.

1:27 τί ἐστιν τοῦτο; διδαχὴ καινὴ κατ' ἐξουσίαν· καὶ {C} 여러 이문(異文) 독법들이 혼란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중에서 ℵ, B, L, 33 안에 있는 독법은 다른 독법이 생기게 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러운 이 구절은 필경사들로 하여금 교정을 가하게 했으며, 또한 많은 필경사들이 이 표현을 눅 4:36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 이런 저런 방법으로 적응시켰을 것이다. 본문의 구두점은 또한 διδαχὴ καινή· κατ' ἐξουσίαν καὶ ...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22절에서 볼 때 κατ' ἐξουσίαν을 διδαχὴ καινή와 함께 놓는 것이 좋은 것 같다.

1:29 ἐκ τῆς συναγωγῆς ἐξελθόντες ἦλθον

{C} 분사와 동사를 단수로 제시한 형태가 강력한 외적 증거(B, D, Θ, f^1, f^{13}, al)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 갔다"란 특법이 위원회에 속한 어떤 위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지만 대다수는 복수로 제시한 형태를 지지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필경사들이 (a) 예수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한 (b) 마 8:14과 눅 4:38에 있는 평행본문들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또한 (c) 30절에 있는 αὐτῷ를 위해 가까운 곳에 선행되는 표현을 제시하기 위해서 복수를 단수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다.

1:34 αὐτόν {A} 마가복음에서 본 문장은 αὐτόν으로 끝나는 것이 분명하며 또한 필경사들이 (아마도) 눅 4:41에 있는 평행본문(ὅτι ᾔδεισαν τὸν Χριστὸν αὐτὸν εἶναι)에 따라서 여러가지 단어들을 첨가시켰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 구절이 원래 원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왜 이 구절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전체적으로 삭제되었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39 ἦλθεν {C} 빙 돌려서 표현하는 식의 미완료 형태가 마가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본문에 있는 ἦλθεν은 앞 절에 있는 ἐξῆλθον의 개념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어로 판단했으며 ἦν은 필경사들이 눅 4:44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서 제시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1:39 εἰς τὰς συναγωγὰς αὐτῶν {B}

앞의 주석에서 제시한 것처럼 ἦλθεν을 ἦν으로 대체시킨 후에 문법에 맞추기 위해서 εἰς를 ἐν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1:40 [καὶ γονυπετῶν] 한편으로는 짧은 독법을 지지하고 있는 B, D, W 등의 증거력이 상당히 강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καὶ γονυπετῶν αὐτόν이 본래 원문에 있었다면 이 구절이 ~~생략된 이유를~~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에 우연하게 생략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체로 평행본문들에서 보면 마태가 προσεκύνει (마 8:1)를 쓴 것과 누가가 πεσὼν ἐπὶ πρόσωπον (눅 5:12)을 썼다는 사실은 오히려 마가의 기록에 있는 무릎 꿇음에 대한 표현이 원문이라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ℵ, L, Θ, f^1, 565, al에 따라서 καὶ γονυπετῶν을 쓰기로 했다. 그러나 괄호로 묶어 두었다.

1:41 σπλαγχνισθείς {D} 원문에 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ὀργισθείς ("화가 난")란 단어를 지나치게 꼼꼼한 필경사들이 σπλαγχνισθείς ("민망히 여김")로 교체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ὀργισθείς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도리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받아들였다. (1) ὀργισθείς를 지지하는 외적 증거는 ~~증거를~~ σπλαγχνισθείς를 지지하는 외적 증거보다 다양하지 못하고 특징적이지 못하다. (2) 마가복음에서

예수가 화가 났거나(3:5) 분개한 것(10:14)으로 묘사된 다른 두 구절에는 그토록 지나치게 꼼꼼한 필경사들이 수정을 하려고 했던 흔적이 없다.(3) 오히려 ὀργισθείς 란 독법은 43절에 있는 ἐμβριμησάμενος 란 구절 때문에 교체되었거나 아니면 아람어(Aramaic)에서 유사한 단어들 간의 혼동(시리아어로 "그가 불쌍히 여겼다"란 의미를 지닌 단어 ethraham 을 "그가 화냈다"란 단어 ethra'em과 비교해보라)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

2:1 ἐν οἴκῳ 위원회의 일부분은 마가적인 문체에 있으며 거의 문어체적인 표현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εἰς οἶκον (A, C, Γ, Δ, Π, Φ, 090, f^1, f^{13}, 22, 28, 157, 330, 543, 565, 579, al)을 원문으로 간주했지만, 대다수는 폭넓고 다양하게 입증되고 있는 ἐν οἴκῳ (ℵ, B, D, L, W, Θ, Σ, 33, 591, 892, 1071, al)를 원문으로 인정했다.

2:4 προσενέγκαι {C} 직접 목적어(αὐτόν)가 없다는 사실은 προσεγγίσαι ("가까이 올")란 단어나 아니면 προσελθεῖν ("...에게 올")이란 단어로 προσενέγκαι ("...에게 데려 올")란 독법 대신에 교체시키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2:4 διὰ τὸν ὄχλον 여기서 D 사본과 W 사본은 ἀπὸ τοῦ ὄχλου 라고 읽는 아르메니아(Armenian) 번역본의 두 사본들과 일치된다. 위원회의 한 회원은 이 독법이 διὰ τὸν ὄχλον (이것은 또한 눅5:19에 있는 평행

본문의 독법이기도 함)보다 더욱더 마가적인 문체와 일치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 독법은 초기 아람어(Aramaic)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2:5 ἀφίενται {B} 완료시제로 된 독법(ἀφέωνται)이 사본들 가운데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지만, 필경사들이 누가의 기록(눅 5:20)에 따라서 제시한 부수적인 표현으로 보인다. 현재 시제로된 마가의 독법(ἀφίενται)은 마태(마 9:2)가 따른 것이다.

2:9 ἀφίενται {B} 5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2:10 ἀφίενται ἁμαρτί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B} B와 Θ의 본문은 아마도 문학 주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독법들을 제시한 필경사들에 의해 재정리된 원시적이며 아람어적인 어순을 보여준다.

2:14 Λευίν {A} 서방 계열 본문들과 가이사랴 계열 본문들에 있는 독법 Ἰάκωβον은 3:18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거기에는 열두 제자들 중에 Ἰάκωβον τὸν τοῦ Ἀλφαίου("알패오의 아들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다.

2:15-16 αὐτῷ. {B} καὶ οἱ γραμματεῖς τῶν Φαρισαίων ἰδόντες {C} 좀더 희귀한 표현인 οἱ γραμματεῖς τῶν Φαρισαίων이 원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필경사들의 경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란 일반적인 표현에 영향을 받아 οἱ γραμματεῖς 뒤에 καί를 삽입시켰을 것이다. 복음서들을 보면 ἀκολουθοῦν이

란 동사는 예수의 제자들에게만 적용시켜 사용했으며 예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용시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αὐτῷ 다음에 문장이 완전히 끝나야 한다. 이런 용법에 개의치 않는 필경사들이 πολλοί 다음에 문장을 끝내고 ἰδόντες 앞에 καί를 삽입시킴으로 원문을 변경시켰다.

2:16 ἐσθίει {B} καὶ πίνει가 있는 독법은 필경사들이 아마 눅 5:30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아 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첨가시킨 것이다. B, D, W, al 등에 의해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는 짧은 독법은 마태가 따랐으며 ὁ διδάσκαλος ὑμῶν (마 9:11)을 첨가시켰다. 이런 마태적인 표현은 C, L, Δ, f^{13}, al 등의 필경사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2:22 ἀπόλλυται καὶ οἱ ἀσκοί {C} 다른 독법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독법은 B, 892, cop^{bo} 등에 있는 독법이다. καὶ οἱ ἀσκοί란 구절은 동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자료들은 ἀπόλλυται (이 단어를 복수로 변형시켜서)를 οἱ ἀσκοί 뒤로 옮겨 놓았다. 더우기 마 9:17과 눅 5:37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아서 필경사들이 포도주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ἀπόλλυται 보다는 ἐκχεῖται란 동사가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서 제시했다.

2:22 ἀλλὰ οἶνον νέον εἰς ἀσκοὺς καινούς {C} 필경사들이 εἰ ... ἀσκοί란 절이 삽입절

이며 그래서 βάλλει란 동사는 ἀλλά 뒤에 있는 단어들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해서 βλητέον(눅5:38에서)이나 아니면 βάλλουσιν(마9:17에서)을 삽입시켰다. 사본 D와 it^a,b,d,ff2,i,r1,t 등에 ἀλλὰ ... καινούς란 구절이 없는 것은 의도적이거나(필경사들이 βάλλει란 동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이 구절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아니면 좀더 가능성이 있는 입장으로서 우발적인 것(οἶνος와 ἀσκός란 단어들이 곧 이어서 뒤들이 되기 때문에)이라고 볼 수 있다.

2:26 ἐπὶ Ἀβιαθὰρ ἀρχιερέως {A} 삼상 21장에서 보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을 때의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히멜렉이었다. 이런 역사적인 난해함을 피하기 위해서 D, W, al 등은 ἐπὶ Ἀβιαθὰρ ἀρχιερέως를 삭제시킴으로서 결국 마12:4과 눅6:4에 있는 본문과 일치시켰다. 다른 증거 자료들은 이 구절을 삭제시키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후에 되었지만) 아비아달의 시대(반드시 아비아달의 제사장 재임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해석이 허용될 수 있도록 ἀρχιερέως(또는 ἱερέως) 앞에 τοῦ를 삽입시켰다.

3:7-8 [ἠκολούθησεν]· καὶ ἀπὸ τῆς Ἰουδαίας καὶ ἀπὸ Ἱεροσολύμων {D} 이런 종류의 다양한 독법들은 마가의 요약적인 진술이 문체적으로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우월하는 B, L, 565

등에 있는 독법을 가장 난 본문으로 간주했으며 대부분의 다른 독법들이 생기게 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독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단수 형태를 복수 형태인 ἠκολούθησαν으로 바꾸고, 바꾼 동사 뒤에 αὐτῷ를 첨가시키고, 어순을 변경시킨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서방 증거 자료들과 가이사랴 증거 자료들(D, W, f^{13}, 28, Old Latin, al)에 동사가 없는 것은 사본 작업시 우연하게 탈락되었거나, 아니면 좀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편집시에 의도적으로 수정을 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ἠκολούθησεν이 지니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3:8 καὶ ἀπὸ τῆς Ἰδουμαίας {B} 사본 ℵ*, W, Θ, f^{1}, syr^{s}, al 등에 καὶ ... Ἰδουμαίας란 구절이 없는 것은 앞에 있는 구절인 καὶ ἀπὸ τῆς Ἰουδαίας(7절)와 유사하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생긴 것 같다.

3:8 πλῆθος πολύ {B} 소수의 사본들(W, $it^{a,b,c}$, syr^{s}, cop^{sa}, al)에 πλῆθος πολύ가 없는 것은 마가의 중복되는 표현들을 문체적으로 다듬기 위해서 생긴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14 δώδεκα, [οὓς καὶ ἀποστόλους ὠνόμασεν,] ἵνα ὦσιν μετ' αὐτοῦ {C} οὓς ... ὠνόμασεν이란 단어들은 누가복음(6:13)에 따라서 삽입시킨 구절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는 이 구절을 지

지하는 외적 증거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 구절을 제거시켜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러 가능성들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었다.

3:16 [καὶ ἐποίησεν τοὺς δώδεκα,] καὶ {C} 한편으로는 καὶ ... δώδεκα란 구절은 필경사가 본문을 잘못 본 결과(14절이 시작되는 구절들에 의한 Dittography 重複誤寫)로 본문에 삽입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구절은 삽입 구절인 ἵνα ... δαιμόνια에 이어서 문맥을 연결시키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상반된 입장을 동등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회는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사본 W의 독법 καὶ περιάγοντας κηρύσσειν τὸ εὐαγγέλιον은 이 사본이 14절에 있는 κηρύσσειν 뒤에도 τὸ εὐαγγέλιον을 삽입시켰기 때문에 의심이 가는 독법이다. f^{13}, cop^{sa} 등의 독법 πρῶτον Σίμωνα καὶ ("첫째는 시몬이고, 그리고 그는 시몬에게 베드로란 다른 이름을 주었다")는 호감은 가지만 어설픈 구문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마 10:2에 따라 동화시킨 구절이라고 생각된다.

3:18 καὶ Θαδδαῖον {A} Θαδδαῖον 대신 Λεββαῖον으로 교체시킨 경우는 마 10:3에 대한 서방 증거 자료들에서 나타난다. 많은 증거 자료들은 그 부분에서 두 독법들을 융합시킨다(마 10:3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 사본

W에서 Θαδδαῖον의 탈락은 우발적인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단지 열한 사람들만 언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다대오란 이름이 생략된 it^e는 바돌로매 뒤에 유다(Iudas)를 덧붙였다.

3:19 Ἰσκαριώθ {B} 마10:4의 주석을 참조하라

3:20 ἔρχεται {C}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 등에 속하는 초기 증거 자료들이 갖고 있는 단수 형태는 1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과 어울리는 자연스런 독법인 복수 형태로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서 변경되었다.

3:21 ἀκούσαντες οἱ παρ' αὐτοῦ {A}
원문이라고 할 수 있는 οἱ παρ' αὐτοῦ ("그의 친구들" 또는 "그의 친척들")란 독법은 너무 당황하게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D, W, al 등이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에 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그를 잡으러 나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했기 때문이다"로 변경시켰다는 주장은 분명하게 수긍이 갈 것이다.

3:29 ἐστιν {B} 앞에 있는 구절에 비추어 볼 때 본문은 현재 시제에서 미래 시제로 바꾸어졌을 가능성이 미래에서 현재로 바뀔 가능성보다 더 크다.

3:29 ἁμαρτήματος {B} κρίσεως ("심판")와 κολάσεως ("고문")란 독법들은 모두 필경사들이 본문에 있는 희귀한 표현의 난해함을 탈피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ἁμαρτήματος (네 복음서들 가운데서 이 단어는 여

기와 29절에서만 언급되어 있으며 그 밖에 신약성서의 다른 곳
에서는 3회 언급된다) 란 독법은 좀더 익숙한 단어라고 여겨
지는 ἁμαρτίας로 대체시켰다.

3:32 σου [καὶ αἱ ἀδελφαί σου] {C}

위원회의 대다수는 καὶ αἱ ἀδελφαί σου란 단어들은 필
경사가 사본 작업시 우연하게 못보고 지나쳤거나(필경사의 눈
이 σου에서 다음에 있는 σου로 뛰어 넘었기 때문) 아
니면 31절이나 34절에도 누이들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평
행본문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고의적으로 삭제시켰으므로 대부
분의 사본들에 생략되어 있다고 이해했다. 만일 이 단어들이
원문에 삽입된 것이라면 31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들이 없는 짧은 독법을 입증하고 있
는 증거력을 고려하여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
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반대입장: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가
이사랴 계열 등의 본문에 보존되어 있는 짧은 독법을 채택해
야 한다. 아마도 서방 본문 계열에 기원을 둔 긴 독법은 기
계적인 확대 때문에 본문으로 기이들이 왔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의 누이들이 예수가 사역할 때 그를 저지하기 위
해 공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B.M.
M.]

4:8 καὶ αὐξανόμενα {C}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법은 αὐξανόμενα(ℵ, B, 10
71, al)이며 이 독법은 주어 ἄλλα와 일치하는 중성 복수

주격이다 ("다른 <씨들은> 좋은 땅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자라 무성하여서 그들은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 생겨났다"). καρπόν 과 (맞지 않게) 결합될 수도 있는 ἀναβαίνοντα 때문에 αὐξανόμενα를 αὐξανόμενον이나 아니면 αὐξάνοντα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강한 경향이 있었다. 이 본사를 변경시키는 데에 작용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ἄλλα를 5절과 7절에 있는 ἄλλο에 동화시키는 것이었다(이 단어는 $\aleph^c$, A, D, Δ, Π, Σ, Φ, f^1, f^{13}, 22, 157, 543, 565, 700, 1071, al 등에서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

4:8 ἓ ... ἓν ... ἓν {C} 사본들 간에 지배적인 독법은 엑센트가 ἐν 이던 ἕν 이던 간에 ἐν 이다. 이문(異文) 독법들의 기초가 되는 것은 아람어(Aramaic)에서 숫자로 "하나"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배수(倍數: ...배)를 나타내는 표시로도 사용했었던 חד였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ἓν을 인정하게 만든다.

4:16 εἰσιν {B} 세 독법들 모두 사본들 가운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공관복음적인 평행구절이 없다. 만일 ὁμοίως가 원문에 있었다면 누군가가 왜 그 단어의 위치를 변경시켰는지 왜 그 단어를 전부 삭제시켜 버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ὁμοίως란 단어가 본문을 더욱 매끄럽게 만든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문학적인 관심이 있는 필경사들에 의해 여러 위치로 삽입된 것이 분명하다.

4:20 ἐν ... ἐν ... ἐν {B} 8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4:24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A} 본문에 제시한 καὶ προστεθήσεται ὑμῖν 이란 구절이 없는 경우는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것 같다. τοῖς ἀκούουσιν 이란 단어는 βλέπετε τί ἀκούετε 란 말씀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삽입된 주석이라고 생각된다. 한 라틴 사본과 고딕(Gothic) 번역본에는 "믿는 너희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란 기록이 있다.

4:40 δειλοί ἐστε; οὔπω {A} 본문으로 채용된 독법은 아주 훌륭한 외적 지지를 받고 있다. 독법 ... πῶς οὐκ (A, C, K, Π, 33, al)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꾸짖음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나타내려고 해서 생긴 것 같다.

5:1 Γερασηνῶν {C} 여러 가지의 독법들 중에서 위원회의 대다수는 (a) 본문에 제시한 독법이 외적 증거가 우세하고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과 서방 본문 계열 등에 속하는 초기의 대표적인 본문들의 지지) (b) Γαδαρηνῶν 은 마태복음에서 유력한 본문(8:28)에 따라 필경사가 동화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Γεργεσηνῶν 은 아마도 오리겐(Origen)이 최초로 제시한 교정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마 8:28 주석을 참조) 등에 근거하여 Γερασηνῶν 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본 W의 독법(Γεργυστηνῶν)은 필경사 특유의 표현법임을 보여준다.

5:21 τοῦ Ἰησοῦ [ἐν τῷ πλοίῳ] {D}

사본 W에는 τοῦ Ἰησοῦ 앞에서 언급되었으며 많은 수의 증거 자료들에 (ℵ, A, <B>, C, L, Δ, f^{13}, 33, 1079, 1241, al)에는 τοῦ Ἰησοῦ 뒤에서 언급된 ἐν τῷ πλοίῳ란 구절에 대해 위원회의 소수는 초기에 필경사가 삽입시킨 것으로 간주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과 다른 본문 계열들에 의해 입증되며 또한 이 구절이 우연하게 탈락되었거나 누가의 평행본문(8:40)에 동화시키기 위해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본들에 이 구절이 없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괄호 안에 있는 독법을 선택했다. 사본 W에서 이 구절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훨씬 좋은 순서를 제시하기 위해서 변경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본 작업시에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능성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했다.

5:21 πάλιν εἰς τὸ πέραν {D} 누가에 있는 평행본문(ἐν δὲ τῷ ὑποστρέφειν τὸν Ἰησοῦν ἀπεδέξατο αὐτὸν ὁ ὄχλος 눅 8:40)은 마가의 독법 πάλιν εἰς τὸ πέραν을 전제로 하고 있다. πάλιν을 συνήχθη ὄχλος πολύς 앞에다 둔 ℵ*, D, 565, 700, al 등의 독법은 4:1을 되돌아 보는 것 같다. Θ와 al 등에 πάλιν이 없는 것과 P^{45vid}와 al 등에 εἰς τὸ πέραν이 없는 것은 고문서적(palaeographical) 혼동 때문에 생략되어 버린 것 같다.

5:22 ὀνόματι Ἰάϊρος 특별 ὀνόματι Ἰάϊρος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후기에 삽입된 것이라는 주장이 종종 논의되어 왔다(참고, Vincent Taylor,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p. 287): (1) ὀνόματι Ἰάϊρος란 단어들은 서방적인 여러 증거 자료들(D, it$^{a,e,ff^2,i}$)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2)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에는 야이로란 이름이 없으며 (3) 수난 사화(Passion Narrative) 바깥에서 제자들 외에 마가에 의해 언급된 사람은 단지 바디매오(10:46)이며 야이로란 이름은 5:35 이후에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4) ὀνόματι란 용법은 마가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누가적이다. 다른 부분에서 마가는 여격(dative)으로 ὄνομα를 사용한다(3:16 이하; 5:9).

이런 주장을 분석해 보면 그 입장이 상당히 위축되어 버린다. 위에 언급한 순서를 역으로 살펴보면:

(a) 여격(dative)으로 ὄνομα를 세번 사용한 것으로 마가가 좋아했던 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특히 이 예들 중에 두번은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보도이다. 이때는 이런 여격이 당연히 요구된다(ἐπιτιθέναι 3:16 이하). 누가는 일반적으로 ὀνόματι를 좋아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합치가 않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대한 누가의 평행본문(8:41)을 살펴보면 (W, Θ, f13, 700 등에 있는 마가적 이문 특별히 ᾧ ὄνομα Ἰάϊρος를 설명

해줄 수 있는) ἀνὴρ ᾧ ὄνομα Ἰάϊρος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b) 한 사람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지만, 마가의 수난 사화(Passion Narrative)에 있는 많은 이름들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런 경우에 Taylor는 바디매오란 이름과 더불어 세례 요한이란 이름(1:4, 6, 9, 14; 6:14, 16-18, 24이하)을 마가가 언급했다는 사실을 무책임할 정도로 무시해 버렸다. 5:35 이하에서 야이로란 이름이 없다고 5:22에 있는 것이 삽입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야이로란 이름은 누가의 기록(8:41)에 단지 한번 언급된다. 그러면 그것도 삽입된 것인가?)

(c) 마태복음에 이 이름이 없다는 것은 다른 예들에서도 종종 논의된 것처럼 마태가 마가의 서방 계열에 속한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마태는 마가의 설명을 상당히 압축시켰으며, 단순히 야이로란 이름 이상을 삭제시켰다는 사실이 관찰되어야 한다.

(d) ὀνόματι Ἰάϊρος가 원문에 있었다는 것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p^{45}, ℵ, A, B, C, L, N, Δ, Π, Σ, Φ, 거의 모든 소문자 사본들, $it^{b,c,l,q}$, vg, $syr^{c,s,p,h,pal}$, $cop^{sa,bo,fay}$, arm, geo 등을 포함하여)는 이 단어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증거(D, $it^{a,e,ff^2,i}$)보다 훨씬 더 우세하다. 본문 비평적 관점에서 볼 때 야이로란 이름은 서방 계열의 일부 본문들이 전승되어 내려오면서 이 이야기나 다른 모든 본문들 속에 삽입되었다기

보다는 (한 희랍어 필사본과 여러 라틴어 증거 자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본문에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입장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열, 동방 본문 계열, 가이사랴 본문 계열 들이 지지한다 (W, Θ, 565, 700 등에 보존되어 있는 독법처럼 가이사랴 증거 자료들의 최초 원본에 있던 야이로에 대한 마가의 원본적인 표현은 누가의 평행본문에 흡수되었다). 누24:53에 있는 서방 본문 계열에 삽입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

5:27 περί {C} τά와 함께 쓰인 독법 (즉 ἀκούσασα τὰ περὶ τοῦ Ἰησοῦ)은 알렉산드리아적인 문장 손질로 보인다.

5:36 παρακούσας {B} 독법 παρακούσας ("무시하시고" 또는 "엿들으시고")가 모호하기 때문에 א*, A, C, D, K, Θ, Π, al 등은 이 단어를 누가의 평행본문에 있는 ἀκούσας (눅8:50)로 대체시켰다.

5:41 Ταλιθα κουμ 사본 W, 28, 245, 349, 여러 Old Latin, Vulgate 사본들 등에 있는 (κουμ이 없는) Ταβιθα란 독법은 필경사가 행9:40에 있는 이름과 혼동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Bezae 사본의 이상한 독법 ῥαββει θαβιτα κουμι는 아람어(Aramaic) 방언으로 "소녀"란 의미를 지닌 [illegible]의 음역인 ραβιθα의 변조문으로 보인다. κουμ (א, B, C, L, M, N, Σ, f^1, 33, 892)과 κουμι (A, D, Δ, Θ, Π, Φ, f^{13}, 22, 28, 124, 543, 565, 579, 700,

copt,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들, it[a,e], vg, syr[p,h,hgr], arm, eth) 사이의 차이는 아람어 명령법의 단수 형태가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קוּם은 가끔 성에 관계 없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주로 남성에서 사용된 단어이며 קוּמִי는 여성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Dalman에 따르면 두 형태 모두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에 여성형 명령법에 있던 어미 *i*가 강세가 있는 피널트(penult) 뒤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한다. it[e]에 있는 학대문 *tabea acultha cumhi*는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

5:42 ἐξέστησαν [εὐθὺς] {D} 괄호에 있는 εὐθὺς란 단어가 앞문장에 있는 εὐθὺς를 보고 필경사가 모방해서 삽입시킨 것인지 아니면 ~~이 단어가~~ 적절치 못하고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단어를 삭제시킨 것인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위원회는 마침내 알렉산드리아 본문의 우수성에 근거하여 이 단어를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독법의 불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πάντες와 함께 쓰인 독법은 이 단어를 ~~사본~~ Bezae 사본이 즐겨 사용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οἱ γονεῖς αὐτῆς와 함께 쓰인 독법은 누가의 병행본문(눅8:56)에서 온 것이다.

6:2 πολλοὶ ἀκούοντες {A} 희랍어에서 πολλοὶ가 관사가 없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압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B, L, f[13], 28, 892 등을 제외한 모든 희랍어 증거

자료들). 이 분사의 단순과거(aorist) 시제는 계속적인 행동을 표현하는 매우 분명하고도 전형적인 마가의 관용어법을 좀 아는 척 하는 필경사들이 교정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6:2 καὶ αἱ δυνάμεις ... γινόμεναι {C} 위원회의 대다수는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독법으로서 문법적으로 난해한 알렉산드리아 본문(ℵ*, B, 33, 892, al)의 독법을 채택했다. 어떤 증거 자료들(ℵc, L, Δ)은 τοιαῦται 뒤에 αἱ를 덧붙였고 반면에 다른 많은 증거 자료들은 δυνάμεις 앞에 있는 관사를 삭제시켰으며 분사를 γίνονται 나 (ἵνα에 의해 이끌어지는 절에서) γίνωνται로 변경시켰다.

6:3 τέκτων, ὁ υἱός {A} 모든 대문자 사본들, 여러 소문자 사본들, 중요한 초기 번역본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 목수가 아니냐?"로 읽고 있다. 매우 초기에 예수를 목수로 표현하는 데에 거부감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 증거 자료들(p^{45}를 포함해서)은 마13:55에 동화되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로 기록하고 있다. 팔레스틴 시리아어 번역본(Palestin-Syriac)은 ὁ τέκτων을 생략시킴으로 같은 결과를 얻는다.

6:14 καὶ ἔλεγον {B} 사본 B, W, it^{a,b,d,ff^2} 등이 읽고 있으며 D^{gr} (ἐλέγοσαν)의 의도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복수로 된 ἔλεγον이 원문 독법인 것 같다.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ἤκουσεν과 일치시키려고 ἔλεγεν으로 변경시

게 놓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문장이 καὶ ἤκουσεν ὁ βασιλεὺς Ἡρῴδης 뒤에서 예수에 대해 퍼져 있던 의견들 중에서 세가지 예들을 삽입구로 제시하기 위하여 전개되는 문장(καὶ ἔλεγον ...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이며, ἀκούσας δὲ ὁ Ἡρῴδης ...는 16절에서도 다시 언급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6:20 ἠπόρει, καί {D} 한편으로 ἐποίει란 독법은 셈어적인(Semitic) 원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폭넓은 희랍어 증거 자료들과 번역본 자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ἠπόρει란 독법은 필경사들이 다른 내용이지만 헤롯이 "상당히 당황했던"(διηπόρει, 눅 9:7) 것에 관한 누가의 설명에 필경사가 동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란 의문이 가긴 하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 독법을 선택했다. (a) 강한 외적 지지(א, B, L, (W), Θ, cop^sa,bo)와 (b) 이 경우에 부사로서 πολλά의 관용어법이 마가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것과 (c) ἐποίει라고 읽을 때 이 절의 진부한과는 대조적으로 의미가 본질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6:22 θυγατρὸς αὐτοῦ Ἡρῳδιάδος {D} 이는 독법이 조금이라도 더 만족스러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αὐτοῦ와 함께 쓰인 독법에 따르면 그 딸은 헤로디아라는 이름을 가졌었고 헤롯의 딸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24절에서 보면 이 여자는 헤로디아의 딸로서 다른 자료

이 의하면 살로메(Salome)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로서 헤롯의 형제의 손녀 딸이다. αὐτῆς τῆς와 함께 쓰인 독법은 이런 명사를 대신하는 과다한 대명사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헤로디아 그녀의 딸"과 같은 의미가 된다. f¹과 여러 초기 번역본들의 (아마) 기초가 되는 희랍어 증거 자료들과 f¹ 등이 읽고 있는 τῆς와 함께 쓴 독법은 가장 초기 형태이며 αὐτῆς가 우연하게 탈락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약간 꺼려하면서도 위원회는 αὐτοῦ란 독법이 역사적인 난해함과 문맥상의 난해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입증이 강력하기 때문에 본문에 채용된다고 결정했다.

6:23 αὐτῇ [πολλά] {C} 부사적인 의미(="매우, 열정적으로")로 πολλά의 사용이 마가적인 문체의 한 특징이기 때문에(1:45; 3:12; 5:10, 23, 38, 43; 6:20; 9:26; 15:3), 이 단어가 원문에 있었던 것이라면 사본 작업 과정에서 우연하게 탈락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단어가 없는 증거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6:23 ὅ τι {D} ΟΤΙ란 글자를 생각하면서 이 글자들을 (ὅ τι 라기 보다는) ὅτι로 이해했으며 결국에는 이어지는 절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의 필요성을 느꼈던 필경사들에 의해 ὅ가 삽입된 것 같다. 다른 독법들은 필경사 특유의 표현법임을 보여준다.

6:33 ἐκεῖ καὶ προῆλθον αὐτούς {B}

여러 독법들 중에서 K, Π, 많은 소문자 사본들을 따르고 있는 Textus Receptus의 독법은 서로 따로 입증되고 있는 구절인 ἐκεῖ καὶ προῆλθον αὐτούς와 συνῆλθον πρὸς αὐτόν을 결합시킨 이문융합(異文融合)임이 분명하다. 이 두 구절 중에서 첫번째 것은 ℵ, B, 892, al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또한 L, Δ, Θ, 1241, al 등(προσῆλθον과 προῆλθον은 고문서에 있어서 쉽게 혼동된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지지받고 있다. προῆλθον은 육지에 있던 사람들이 배를 앞질러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필경사들에 의해 προσῆλθον이나 συνῆλθον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이런 필경사들의 관점 외에도 Lagrange가 관찰했던 것처럼 바람이 역풍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외적 증거와 내적 고찰 등은 모두 προῆλθον과 함께 소인 독법이 원본일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6:39 ἀνακλῖναι {B} 능동태 형태는 타동사이며("그가 그들<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게 하라고 명하셨다"), 반면에 수동태 형태는 자동사이다("그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떼를 지어 앉으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마도 여기서 능동태 용법을 이해하지 못한 필경사들이 마14:19에 있는 평행 독법(ἀνακλιθῆναι)에 따라서 ἀνακλῖναι를 동화시킨 것 같다.

6:44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C} αὐτοῦ와

함께 쓰인 독법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와 이 단어가 없이 쓰인 독법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가 고르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정상적으로 볼 때 마가는 "그의 제자들"이란 말을 사용하며 "그 제자들"이란 표현은 매우 드물게 썼다. 이들 중에서 첫번째 표현은 예수의 제자들이 아직 "그 제자들"이 아니었을 때(마14:19과 눅9:16에 있는 평행문들을 비교하라)를 가리키는 복음서 전통의 한 전승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 근이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αὐτοῦ는 원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이 단어가 없는 짧은 독법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αὐτοῦ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6:44 [τοὺς ἄρτους] {C} τοὺς ἄρτους란 단어들을 포함시킨 증거 자료들과 이 단어들이 없는 외적 증거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져 있다. 더우기 긴 독법을 자주 지지하던 여러 증거 자료들(D, W, syr^s 등과 같은 자료들)조차도 여기서는 이 단어들이 없는 짧은 독법을 지지하고 있다. 사본 작업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볼 때 필경사들이 τοὺς ἄρτους를 첨가시키기 보다는 삭제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더 받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왜 물고기는 언급하지 않고 빵(=떡) 하나만 언급되었느냐"라는 이리속은 질문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Old Latin ms. c는 둘 다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충된 사항들 때문에 위원회는 이 단

이들을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6:49 ἦν {C} 여러 중요한 증거 자료들(p^{45}, D, f^1, 28, al)은 표현력을 더해주는 단어 πάλαι("이미", "벌써", "바로 지금")를 덧붙였다. 만일 이 단어가 마가복음 원문에 있었다면 마태복음(14:24에서 τὸ δὲ πλοῖον ἤδη ...로 기록되어 있음)은 πάλαι가 포함되어 있던 마가복음의 한 사본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대다수 의견은 폭넓고 다양한 증거 자료들에 이 단어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모아졌다.

6:50 γὰρ αὐτὸν εἶδον {B} 사본 D, Θ, 565, 700, al 등에 γὰρ αὐτὸν εἶδον이란 단어들이 없는 것은 (a) 사본 작업시 우연히 탈락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b) 49절의 οἱ δὲ ἰδόντες αὐτόν 뒤에 언급된 이 단어들을 중복되는 것들로 여겼던 필경사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삭제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6:51 ἐξίσταντο {C} 짧은 독법이 원문인 것 같다. 왜냐하면 확대된 독법 ἐξίσταντο καὶ ἐθαύμαζον은 이 두 동사가 같이 언급된 행 2:7에 있는 내용을 기억한 필경사들이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7:3 πυγμῇ {A} 유대적인 씻는 예의(ceremonial washings)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πυγμῇ(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주먹으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필경사들은 이 단어를 삭제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이며(Δ, syr^s, cop^sa, Diatessaron^p), 그리고 다른 필경사들은 이 단어를 좀더 쉬운 의미를 가진 πυκνά ("자주", 또는 "철저하게": ℵ, W, it^b,l, vg, al)나 *momento* ("잠깐": it^a)나 *primo* ("첫째로": it^d) 등과 같은 단어들 대체시키고자 하는 충동을 받았다.

7:4 ἀγορᾶς {A} καὶ ἀπ' ἀγορᾶς ἐὰν μὴ βαπτίσωνται οὐκ ἐσθίουσιν이란 표현이 갑작스럽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러 증거 자료들(D, W, al)에서는 ὅταν ἔλθωσιν을 첨가시킴("*그들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자신들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7:4 βαπτίσωνται {B} 익숙하지 않은 단어(ῥαντίσωνται)가 좀더 익숙한 단어(βαπτίσωνται)로 교체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기독교 예식을 위해서 βαπτίζειν을 그대로 쓰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좀더 가능성이 있는 추정으로서 ἀπ' ἀγορᾶς를 단편적인 구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알렉산드리아 필경사들이 "그들은 시장에서 (가져 온 것을) 물뿌리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다"와 같이 의미를 좀더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ῥαντίσωνται를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7:4 καὶ χαλκίων [καὶ κλινῶν] {C} καὶ κλινῶν이란 단어들이 레위기 15장의 법률에 영향을 받은 필경사들에 의해 첨가된 것인지, 아니면 원문에 있던 이 단어들이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에 우연하게 탈

락되었거나 (b) 침대들을 씻거나 물을 뿌린다는 개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시켰는지 등을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서로 상반된 두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강력한 증거 자료들과 마찬가지로 내적인 고찰도 두 입장으로 균형있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서 본문에 두기로 결정했다.

7:6 τιμᾷ {B} 여러 초기 증거 자료들(D^gr, W, it^{a,b,c}, Clement, Tertullian)에 있는 독법 ἀγαπᾷ는 이사야 29장 13절에 대한 70인역(LXX) 본문 중 잃어버린 다른 이문 독법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 본문에 대한 서방 본문의 전형적인 편향(偏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 모두 P^{45}, ℵ, A, B, L, Δ, Θ, f^1, f^{13}, 33, 565, 700, 892, $it^{d,ff^2,i,l,q}$, vg, $syr^{s,p,h}$, $cop^{sa,bo}$, goth, arm, geo, $Diatessaron^p$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독법보다 못하다.

7:7-8 ἀνθρώπων. ἀφέντες ... ἀνθρώπων. {A} "주발들과 잔들을 씻는 것처럼 너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행한다"란 번역문을 가지고 있는 흠정역(AV)의 근거가 되는 희랍어 본문은 가장 오래되고 뛰어난 증거 자료들에는 없으며, 4절에서 파생된 필경사의 첨가문임이 분명하다. 긴 독법이 다른 두 위치 즉 8절 앞머리(D, Θ, al)와 8절 끝부분(K, X, Π, f^{13}, 33, 700, 892, al)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 독법이 부차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7:9 στήσητε {D} 필경사들이 고의로 문맥상 더욱 적절한 동사라고 여겨서 τηρήσητε ("지킨다") 대신에 στήσητε ("제정한다")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사본 작업 시에 앞에 있는 구절 τὴν ἐντολὴν τοῦ θεοῦ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실수로 στήσητε를 τηρήσητε로 바꾼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원회는 후자의 경우가 대체적으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7:16 절을 인정하지 않음 {B} 비록 이 절은 많은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ℵ, B, L, Δ*, al)에서는 탈락되어 있다. 이 절은 14절에 적절한 결과로 제시한 (아마 4:9이나 4:23에서 온) 필경사의 주석인 것 같다.

7:19 καθαρίζων {A} 사본 증거는 καθαρίζων이란 독법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문장에서 이 단어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필경사들로 하여금 여러가지 교정과 수정을 하도록 자극했을 것이다.

7:24 Τύρου {A} καὶ Σιδῶνος란 단어들은 마15:21과 막7:31에 동화된 것 같다. 만일 이 단어들이 원문에 있었다면 이것들이 생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단어들이 없는 짧은 본문을 지지하고 있는 증거 자료들에는 서방 본문 형태와 가이사랴 본문 형태 등의 대표적인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7:28 κύριε {B} 앞에서 24절에 있는 이문을

논의했을 때에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문 독법에 대한 증거력을 평가할 때에도 같은 고찰이 적용된다. καί 란 단어(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 8회, 누가복음에서 4회 언급되었으며, 마가복음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마 15:27에 있는 평행구절에 따라서 여기에 소개된 것이 분명하다.

7:31 ἦλθεν διὰ Σιδῶνος {A} 가이사랴 본문 계열의 주목할만한 증거 자료들 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 등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들이 지지하고 있는 독법에 따르면 예수는 두로(Tyre)로부터 북쪽을 향하여 출발하여 시돈(Sidon)을 통과하고 거기서부터 동남쪽으로 향하다가 레온테스(Leontes)강을 건너서 가이사랴 빌립보(Caesarea Philippi)를 지나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요단(Jordan) 동쪽으로 향했으며 결국 데가볼리(Decapolis) 영토에 속한 갈릴리 호수 동쪽 지방에 이르는 순환적인 경로를 취했다.

καὶ Σιδῶνος ἦλθεν 이란 독법은 필경사들이 우연하게("두로와 시돈"이란 관용적인 표현에 영향을 받아서) 변경된 것이거나 아니면 고의로(왜냐하면 예수의 여행 경로가 상당히 크게 도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다.

7:35 καὶ [εὐθέως] {C} 마가가 εὐθύς (여러 사본들에서 이 단어는 εὐθέως로 나타난다)를 선호함은 이 부사가 여기나 또는 ἐλύθη 앞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아래 이문 독법을 참조하라). 그러나 ἐλύθη 앞에 εὐ

가 있는 본문에 대한 외적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 반면에 이곳에 εὐθέως가 포함된 것에 대한 증거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동시에 εὐθέως가 없는 증거 자료들(ℵ, B, D, L, Δ, al)이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εὐθέως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7:35 καί (2) {B} καί 뒤에 εὐθέως를 생략한 여러 증거 자료들(ℵ, L, Δ, 892)은 여기에 2 단어(또는 εὐθύς)를 삽입시켰다(앞의 주석을 참조하라).

7:37 [τοὺς] ἀλάλους {C} κωφός가 "귀머거리" 뿐만 아니라 "벙어리"도 의미한다는 사실은 몇몇 필경사들(W, 28, al)로 하여금 τοὺς ἀλάλους를 삭제시키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τοὺς가 있는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와 없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서로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단어를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8:7 εὐλογήσας αὐτά {B} 독법 εὐχαριστήσας (D, 1009, $\mathrm{it}^{d,q}$)는 필경사가 6절에 따라 동화시킨 것 같다. 다른 독법들 중에서 본문으로 채용된 독법은 외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여러 증거 자료들은 중복된다고 여겼거나(뒤에 이어 연결된 ταῦτα를 볼 때), 아니면 아마도 부적절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예수는 고기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했다) 삭제시켰다.

8:10 τὰ μέρη Δαλμανουθά {B} 이 구

절은 두 종류로 나누어서 고찰해야 된다. 거의 모든 대문자 사본들과 중요한 여러 소문자 사본들(ℵ, A, B, C, K, L, X, Δ, Θ, Π, f^1, f^{13}, 33, 565, 700, al) 등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독법 τὰ μέρη는 좋은 독법임이 분명하다. 이 단어의 동의어인 τὰ ὅρια(이 단어는 마 15:39에 있는 평행구절에서 나타난다)와 τὰ ὅρια에서 파생된 독법들(τὰ ὄρη와 τὸ ὄρος)은 지지해주는 증거가 빈약하다.

달마누다(Dalmanutha : D를 제외한 모든 대문자 사본들에 기록되어 있음)는 위치가 분명치 않은 장소이다. 다른 곳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이 단어에 당황한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Μαγεδά(ν) 또는 Μάγδαλα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구절(15:39)에 있는 독법들인 으로 바꾸었다.

8:13 πάλιν ἐμβάς {C} ἐμβάς 앞에 있는 πάλιν은 ἀφείς를 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ἐμβάς를 수식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어떤 필경사들은 이 단어를 ἐμβάς 뒤로 옮겨 놓았다. 비록 알렉산드리아의 필경사들이 εἰς τὸ πλοῖον을 ἐμβάς 뒤에서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서 삭제시켰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구절은 (알렉산드리아 증거 자료들 뿐 아니라 어떤 다른 이 증거 자료들에서도 이 구절이 빠져 있다) "배에 오르다"란 동사에 자연스럽게 보완시켜주는 표현으로서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더 크다.

8:15 ὁρᾶτε, βλέπετε {C} καί와 함께 쓴

독법은 비록 초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필경사들이 이설픈 파격 구문(破格構文: Anacoluthon)을 피하려는 의도에 의해 생겨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아마도 마16:6에 있는 유사한 평행구절을 모방했을 수도 있다; ὁρᾶτε καὶ προσέχετε). 다른 필경사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동사들 중에서 하나를 생략시키는 편법으로 문장을 더욱 매끄럽게 만들었다.

8:15 Ἡρῴδου {A} 3세기와 4세기 경에 유행되었던 독법 τῶν Ἡρῳδιανῶν (P^{45}, W, cop^{sa})은 3:6과 12:13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필경사의 변경 수정임이 분명하다.

8:16 πρὸς ἀλλήλους {C} 많은 증거 자료들은 (아마도 마16:7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아서) ἀλλήλους 뒤에 λέγοντες를 첨가시킴으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구문을 완화시켰다.

8:16 ἔχουσιν {C} 비록 독법 ἔχομεν이 강하게 지지받고 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다른 독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ἔχουσιν을 선택했다. 그래서 D, al 등에 있는 독법 εἶχαν (이 독법은 1인칭 동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서 3인칭 동사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은 결벽주의자에 의해 제시된 문법적 수정이며, 반면에 ἔχομεν과 ἐλάβομεν은 모두 뒤에 이어지는 문맥에 일치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마16:7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8:17 πεπωρωμένην ἔχετε τὴν καρδίαν ὑμῶν {B} ἔχετε 와 함께 쓴 독법 탁월하게 입증된다(D와 Θ를 제외한 모든 대문자 사본들). πεπωρωμένην 앞에 있는 ἔτι (A, K, X, Π, 700, al)는 συνίετε의 마지막 음절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 단어의 의미도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것 같다.

8:26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B} 중요한 이문 독법들의 발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1)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ℵ^{c}, B, L, f^{1}, syr^{s}, cop$^{sa, bo, fay}$)

(2) μηδενὶ εἴπῃς ἐν τῇ κώμῃ (it^{k})

(3)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μηδὲ εἴπῃς τινὶ ἐν τῇ κώμῃ (A, C, ... al)

(4) ὕπαγε εἰς τὸν οἶκόν σου καὶ μηδενὶ εἴπῃς (아래 것들의 모체가 되는 본문)

(4a) καί + ἐὰν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Θ, it^{b,l}, vg)

(4b) εἴπῃς + εἰς τὴν κώμην (D)

(4c) εἴπῃς + ἐν τῇ κώμῃ (Θ, 565)

(4d) καί + μηδὲ εἰς τὴν κώμην εἰσέλθῃς μηδὲ εἴπῃς τινὶ ἐν τῇ κώμῃ (124)

독법 (1)은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가이사랴 본문 계열, 동방 본문 계열, 에집트 본문 계열 등의 대표적인 초기 본문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장 최초의 원문으로 생각된다. 독법 (2)는 (1)의 의미를 분명하게 할 의도에 의해서 생겨났다. 독법 (3)은 (1)과 (2)를 융합시킨 것이 분명하다. 독법 (4)는 (2)에다 도입 문구를 붙여서 만든 정교한 표현으로서 서방 증거 자료들과 가이사랴 증거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여러 변경 문구들의 모체가 되는 것 같다.

8:35 ἐμοῦ καί {C} p45, D, 28, 700, al 등에 ἐμοῦ καί란 단어들이 없는 이유를 필경사가 못보고 빠뜨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외에 달리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ἕνεκεν 뒤에 이 이중적인 표현을 마가의 문체와 더욱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서 본문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더우기 공관적인 두 평행본문들(마16:25와 눅9:24) 모두 ἕνεκεν ἐμοῦ로 읽고 있기 때문에 마태나 누가가 이용했던 마가의 사본들에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8:38 λόγους {B} λόγους란 단어가 없는 독법이 보다 좋은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만("누구든지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을 부끄러워 하면") 다양하고 폭넓은 여러 본문 형태에 이 단어가 삽입되었다고 설명하기 보다는 이 단어가 없는 짧은 독법의 기원을 ἐμοὺς λόγους란 단어들의 어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탈락된 것으로 설명하기가 더 쉽다.

8:38 μετά {B} μετά 대신에 καί와 함께 쓰인 독법은 필경사의 부주의로 생겨난 것이던지 아니면 눅9:26에 따라 동화시켰기 때문인 것 같다.

9:16 αὐτούς 헬라적 용법(벧3:21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소수 위원은 αὐτούς에 거친 숨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9:23 τὸ εἰ δύνῃ {B} 이 지나칠 정도로 압축된 이 문장은 필경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τὸ εἰ δύνῃ란 표현에서 예수는 아이의 아버지가 한 말을 반문하기 위해서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러 증거 자료들은 πιστεῦσαι를 첨가시킴으로 "할 수 있다"란 동사의 주어를 예수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변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던 τό는 이전의 표현보다 더욱 어설프게 보여서 많은 증거 자료들이 이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다.

9:24 παιδίου {A} 후기 사본들에 μετὰ δακρύων이란 표현은 필경사들이나 교정사들(참고, A와 C 안에 있는 교정문들)이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부각시키기 위해 첨가시킨 것임을 보여준다. 만일 이 구절이 원문에 있었다면 그것이 생략될 만한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다.

9:29 προσευχῇ {A} 초기 교회에서 금식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로 강조되어지면서 καὶ νηστείᾳ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주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확대 문구들을 반대하는 증거 자료들 중에는 알렉산드리아 계열, 서방 계열, 가이사랴 계열 등의 대표적 본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9:34 ἐν τῇ ὁδῷ {B} 33절에도 ἐν τῇ ὁδῷ가 있는 것을 본 여러 증거 자료들의 필경사들은 34절에도 이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서 삭제시켜 버렸다.

9:38 καὶ ἐκωλύομεν αὐτόν, ὅτι οὐκ ἠκολούθει ἡμῖν {C} 사소한 차이가 있는 많은 이문 독법들 중에는 세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독법이 있다. (1) "그리고 우리가 그를 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금하였나이다". (3)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금하였나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언급된 독법은 다른 두 독법들을 전제로 이문융합(異文融合)된 독법이다. 독법 (1)은 탁월한 증거 자료들(ℵ, B, Δ, Θ, Ψ, $syr^{s,p,pal}$, al)에 의해 입증되고, 독법 (2)는 마지막 절을 1 절의 주어와 밀접하게 배열시키기 위해 1 절의 위치를 바꾸었기 (또한 ὅτι를 ὅς로 변경시킴으로) 때문에 독법 (1)을 원문으로 간주했다

9:41 ἐν ὀνόματι {A} ἐν ὀνόματι ὅτι ("...범주에서", ~~또~~ "...에 근거하여" 또는 "왜냐하면")란 표현은 비록 완전하게 ~~받아들~~ 받아들일 수 있는 희랍어이지만 어떤 필경사들에게는 이상한 문구로 보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이 문구를 변경시켰다.

9:42 πιστευόντων [εἰς ἐμέ] {C} εἰς ἐμέ란 구절은 매우 강력하게 입증된다(A, B, L, W, Θ, Ψ, f^1, f^{13}, syr^s, cop^{sa}, al). 그러나 등A에 ℵ, D, Δ 등에 이 단어가 없다는 사실은 이 단어들이 마태의 평행본문(18:6)에서 마가의 본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과 더불어 ~~마가복음의~~ 이 단어들이 마가복음의 원문이라는 점에 의문을 야기시킨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 구절을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9:43 εἰς τὴν γέενναν, εἰς τὸ πῦρ τὸ ἄσβεστον {B} 마태의 평행본문(18:8)이 εἰς τὸ πῦρ τὸ αἰώνιον으로 읽고 있다는 사실은 마가복음도 또한 전통사적인 수식어(τὸ ἄσβεστον)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ℵ^{*,b}$, A, B, C, K, X, Θ, Π, 565, $it^{a,l}$, vg, cop^{bo}, goth, arm, al 등이 갖고 있으며 이 수식어와 함께 쓰인 여러 모양의 독법들은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9:44 절을 인정하지 않음 {A} ὅπου ὁ σκώληξ ... οὐ σβέννυται란 단어들은 중요한 초기 증거자료들(ℵ, B, C, W, it^k, syr^s, cop^{sa} 등을 포함하여)에는 빠져 있

고 필경사들이 44절에 따라 첨가시켰다.

9:45 εἰς τὴν γέενναν {A} 43절에 있는 평행구절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필경사들이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 서방 본문 계열, 동방 본문 계열, 에집트 본문 계열 등의 대표적인 본문들에 의해 확고하게 입증되고 있는 특별에 수식어를 첨가시키려고 했다.

9:46 절을 인정하지 않음 44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9:49 πᾶς γὰρ πυρὶ ἁλισθήσεται {B} 이 절에 있는 단어들은 세가지 중요한 형태로 전승되었다. (1) πᾶς γὰρ πυρὶ ἁλισθήσεται (B, L, Δ, f^1, f^{13}, syr^s, cop^{sa}, al ;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로 소금뿌리듯함을 받게 될 것이다"). (2) πᾶσα γὰρ θυσία ἁλὶ ἁλισθήσεται (D, $it^{b,c,d,ff^2,i}$; "왜냐하면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뿌림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 πᾶς γὰρ πυρὶ ἁλισθήσεται καὶ πᾶσα θυσία ἁλὶ ἁλισθήσεται (A, K, Π, al ;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로 소금뿌리듯 함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제물은 소금으로 뿌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본문의 전승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초기에 어떤 한 필경사가 수수께끼 같은 예수의 말씀의 뜻을 풀 수 있는 열쇠를 레 2:13에서 찾아내어 그의 마가복음 사본 난외에다 구약 본문을 써넣었다. 잇달아 계속되는 사본 작업 과정에서 이 난외의 주석은 원문에 있는 단어들 대신 기록되어 (2)의 독법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원문

에 첨가되어 (3)의 독법을 만들었다. 다른 변경문들에는 πυρὶ ἀναλωθήσεται (Θ; "...불에 타버릴 것이다"), θυσία ἀναλωθήσεται (Ψ; "...제물은 타버릴 것이다"), ἐν πυρὶ δοκιμασθήσεται (1195; "...불로 시험받을 것이다"), πᾶσα δὲ οὐσία ἀναλωθήσεται (it^k; "그리고 모든 물질은 파괴될 것이다", θ 대신 O로 읽고 ΑΛΙΑΛΙC 대신에 ΑΝΑΛω로 읽는다)

10:1 [καὶ] πέραν {C}

독법 διὰ τοῦ πέραν (A, K, X, Π, 대부분의 소문자 사본들, Textus Receptus가 이 독법을 따름; 참조, 흠정역에는 "요단 건너편을 통해 유대 해안 지방으로"로 기록되어 있다)은 원문이 지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필경사들이 제시한 해설적인 구절임이 분명하다. καὶ πέραν (알렉산드리아 본문 계열)과 πέραν (서방 본문 계열, 가이사랴 본문 계열, 안디옥 본문 계열) 사이에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위원회는 두번째 독법이 다양하게 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사실에 인상을 받았지만 그러나 καί가 없는 것은 마태의 평행본문(19:1)에 동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초래된 것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 이러한 외적 증거와 내적 가능성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균형있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καί를 본문에 두되 괄호로 묶기로 했다.

10:2 καὶ προσελθόντες Φαρισαῖοι {C}

이 문 독법들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는 προσελθόντες

서체 원서참고

서체 원서참고

(οἱ) Φαρισαῖοι란 구절이 원문이냐 아니냐란 것이다. 원문에는 단순하게 비인칭 복수형(impersonal plural)인 ἐπηρώτων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또는 "그는 질문을 받았다")만 있었는가?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구절(19:3)이 동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이 언급된 구절이 많은 증거 자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인가? 이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의 구절은 절대로 평행적이지 않다(προσῆλθον αὐτῷ Φαρισαῖοι)는 사실과 ~~본문의 구절~~ 긴 목록을 지지하는 폭넓고도 인상적인 증거는 위원회의 대다수로 하여금 이 단어들을 본문에 남겨두기로 결정하게 했다.

(이 비인칭 복수형은 마가적인 문체의 한 특징이므로 προσελθόντες Φαρισαῖοι란 단어들은 아마도 마태복음에 따라 첨가된 것일 수 있다. 만일 이 구절을 두려면 괄호로 묶어 두어야 할 것이다. B.M.M.과 A.W)

10:6 αὐτούς {B} ἐποίησεν의 주어로 ὁ θεός를 삽입시키는 것이 필경사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잘 알지 못하는 독자가 앞에서 언급된 주어(모세)를 이 절의 주어로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증거 자료들(D, W, it^{b,d,ff^2,k,r^1}, al)은 αὐτούς를 중복되는 것으로 여겨서 삭제시켰다.

10:7 μητέρα [καὶ προσκολληθήσεται πρὸς τὴν γυναῖκα αὐτοῦ] {D} καὶ προσκολληθήσεται πρὸς τὴν γυναῖκα (또는 τῇ γυναικί) αὐτοῦ란

단어들이 마19:5(그리고 창2:24)에 있는 좀더 완전한 형태의 인용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본들 안으로 삽입된 것인지, 아니면 사본 작업시 필경사들에 의해 우연하게(필경사의 눈이 앞에 있던 καί에서 뒤에 있는 καί로 뛰어 넘었기 때문에) 생략 탈락된 것인가? 이러한 상반된 가능성들이 서로 엇비슷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대다수는 이 구절을 본문에(왜냐하면 이 구절은 본문의 의미를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8절에 있는 οἱ δύο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에 기록해 넣되 괄호로 묶어두기로 했다. πρὸς τὴν γυναῖκα 와 τῇ γυναικί 중에서 먼저 언급된 구절이 원문에 가깝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창세기의 인용문을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며, 후에 언급된 여격 구문은 문체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 명백하다.

10:13 ἐπετίμησαν αὐτοῖς ἐπετίμησαν αὐτοῖς 란 구절이 꾸짖음을 받은 것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사람들 대신에)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도록 여러 폭넓은 증거 자료들은 ἐπετίμων τοῖς προσφέρουσιν (Θ는 φέρουσιν 으로 읽는다) αὐτοῖς (A, D, N, W, X, Y, <Θ>, Π, Σ, Φ, f^{13}, 28, 543, 565, 700, 1071, al, 이 독법은 Textus Receptus가 따랐음)로 읽도록 본문을 확대시켰다. 본문으로 채택된 독법은 ℵ, B, C, L, Δ, Ψ, 579, 892, 1342, $it^{c,k}$, cop^{bo}, al 등에 의해 강력하게 입증

된다.

10:14 καὶ {C} 여러 증거 자료들(주로 가이사랴 계열)에서 ἐπιτιμήσας가 첨가된 것은 앞 문장에 있는 ἐπετίμησαν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10:19 μὴ ἀποστερήσῃς {C} "속여 취하지 말라"란 계명(출20:17이나 신24:14〈70인역 mss., A, Π〉이나 시락서 4:1을 기억하여 기록한 글)이 십계명에 있는 여러 조항 중에 부적절하다고 여겼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필경사들이 마태복음(19:18)이나 누가복음(18:20)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삭제시켰다.

10:23 εἰσελεύσονται 서방 본문들(D, it$^{a,b,d,ff^2}$)은 εἰσελεύσονται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25절을 옮겨 놓았다(그래서 절의 순서가 23절, 25절, 24절, 26절로 되어 있다). 이러한 위치 변경은 좀더 점증적으로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 서방 계통의 편집자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첫째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더나아가서는 재물을 믿는 사람들도〈24절 주석 참조〉 들어가기 어렵다). 어떤 학자들은 변경된 순서가 원문일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은 서방 본문의 매우 논리적인 순서는 그것이 원문을 변경시킨 것이라는 추정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소문자 사본 235는 25절을 두번 포함시켰다(절순서가 23절, 25절, 24절, 25절, 26절로 되어 있다).

10:24 ἐστιν {C} 예수의 말씀의 엄격함은 이

말씀의 보편성을 제한하며 문맥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는 조항을 삽입시킴으로 더욱 완화되었다. 이런 결과로 A, C, D, Θ, f^1, f^{13}, al 등에는 ἐστιν τοὺς πεποιθότας ἐπὶ χρήμασιν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W와 it^c는 πλούσιον ("부자")를 삽입시켰고, 1241에는 οἱ τὰ χρήματα ἔχοντες ("재물을 가진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다.

10:25 κάμηλον 여러 증거 자료들(13, 28, 471*, 543, arm, geo 등을 포함하여)에는 κάμηλον 대신 κάμιλον("밧줄", "동아줄")로 기록되어 있다(눅18:25의 주석을 참조하라).

10:26 πρὸς ἑαυτούς {B} 특별 πρὸς αὐτόν 은 A, D, W, Θ, f^1, f^{13}, it, vg, goth, arm, eth, al 등에 보전된 πρὸς ἑαυτούς 대신에 쓰인 알렉산드리아적인 수정으로 생각되며, M*, it^k, syr^p, geo 등에서 (πρὸς ἀλλήλους) 다듬어진 구절이다.

10:30 이 절의 개칠은 구문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서방 본문(D, it^{a,b,ff^2}, vg^{ms})은 νῦν을 삭제시키고 ἑκατονταπλασίονα ἐν τῷ καιρῷ τούτῳ 뒤에 새 문장을 시작한다. 즉 ὃς δὲ ἀφῆκεν οἰκίαν καὶ ἀδελφὰς καὶ ἀδελφοὺς καὶ μητέρα καὶ τέκνα καὶ ἀγροὺς μετὰ διωγμοῦ (D^{vid}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Old Latin은 복수로 읽는다), ἐν τῷ αἰῶνι τῷ ἐρ

ἐρχομένῳ ζωὴν αἰώνιον λήμψεται ("… 금세에 백배나 …, 그리고 핍박으로 <=핍박 때문에> 집과 자매와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버린 자는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니라"). μετὰ διωγμόν ("핍박 후에")란 이문(異文)은 Σ, 25, 72, 114, 157, 476[c], l[48,184], geo[2], al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독법이었다는 흔적일 수 있고, 아마도 ω와 o의 혼동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는 이 절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The Rich Man's Salvation, 4; cf. 25): ἀπολήψεται ἑκατονταπλασίονα. νῦν ἐν τῷ καιρῷ τούτῳ ἀγροὺς καὶ χρήματα καὶ οἰκίας καὶ ἀδελφοὺς ἔχειν μετὰ διωγμῶν εἰς ποῦ; ἐν δὲ τῷ ἐρχομένῳ ζωή ἐστιν αἰώνιος ("… 일백배를 돌려 받을 것이요. 그리고 핍박들로 인해 지금 이 때에 밭들과 재물들과 집들과 형제들을 가지리라고 어느 때까지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내세에는 영생이 있으리라")

10:34 μετὰ τρεῖς ἡμέρας {A} 전형적인 마가의 독법인 μετὰ τρεῖς ἡμέρας (이 구절은 8:31과 9:31에서도 볼 수 있으며 그 밖에는 마 27:63에 있는 예수의 부활을 언급한 구절에서만 볼 수 있다)는 필경사들이 훨씬 자주 사용했던 표현인 τῇ τρίτῃ ἡμέρᾳ (마 20:19과 눅 18:33에 있는 평행본문과 비교하라)와 일치되게 바꾸었다.

10:40 ἀλλ' οἷς {A} 이 문장의 앞부분과 문

법칙으로 일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초기 번역본들 (it$^{a,b,d,ff^2,k}$, syr^{s}, cop^{sa}, eth)은 희랍어 ΑΛΛΟΙϹ를 ἄλλοις로 이해했다.

10:40 ἡτοίμασται {B} 초기 본문들(א*, it$^{a,r^1,vid}$ 등과 같은)이 포함된 여러 증거 자료들에 있는 ὑπὸ (또는 παρά) τοῦ πατρός μου란 구절 마 20:23에 있는 평행본문에 따라 첨가된 것이 분명하다.

10:43 ἐστιν {A} A, C^{3}, K, X, Π, 대부분 소문자 사본들(Textus Receptus가 따랐음)에 기록되어 있는 있는 미래 시제는 현재 시제로 된 ἐστιν의 강압적인 어조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필경사가 수정한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 미래 시제는 다음 절에 있는 ἔσται에 동화된 것일 수도 있다.

10:46 προσαίτης ἐκάθητο παρὰ τὴν ὁδόν {C}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법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증거 자료들(א, B, L, Δ, Ψ, al)에 의해 입증되고 있는 προσαίτης ἐκάθητο παρὰ τὴν ὁδόν이다. προσαίτης가 매우 희귀한 후기 희랍어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 자료들은 이 단어 대신에 분사 구문인 προσαιτῶν(A, K, W, X, Π, f^{1}, f^{13}, al, Textus Receptus가 따랐음)이나 누가의 평행본문(18:35)에 있던 ἐπαιτῶν으로 대체시켰다. C*와 Diatessaron^{p}에 이 단어가 없는 것은 필경사들이 못 보고 빠뜨렸기 때문이다.

10:47 Ναζαρηνός {A} 여기 말고도 마가는 다른 곳에서 Ναζαρηνός란 단어를 세번(1:24; 14:67; 16:6) 사용했지만 Ναζωραῖος(이 단어는 신약성서에 13회 나타난다)는 결코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필경사들이 익숙치 않은 단어 대신에 익숙한 단어를 제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1:3 αὐτὸν ἀποστέλλει πάλιν {B}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애매하다. καὶ εὐθὺς αὐτὸν ἀποστέλλει πάλιν ὧδε란 단어들이 제자들이 전달하는 내용의 일부분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진술인가? 마태는 이 단어들을 후자의 입장에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 πάλιν이 있다는 사실은 이 단어들이 전달하는 내용의 일부분으로 예수께서 그 짐승을 사용하신 후에 돌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그 짐승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려했던 필경사들이 동사 앞이나 뒤에 πάλιν을 삽입시켰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고려 사항이 마태의 평행구절의 경우에서 작용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ℵ, D^gr, L, 892, al 등의 강력한 증거력은 αὐτὸν ἀποστέλλει πάλιν이 원문이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리고 이 구절은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던지 아니면 더이상 제자들이 전달하는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던지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현재 시제보다 문맥을 더 부드럽게 해주는 미래 시제는 필경사의 교정으로 간주된다.

11:19 ἐξεπορεύοντο ἔξω τῆς πόλεως {C}

비록 단수 동사(ἐξεπορεύετο)가 다음 절에 맞추기 위해 복수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증거들이 복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사본 L에서 이 동사가 없는 것은 사본 작업시 우발적인 사고 때문이다.

11:22 Ἔχετε {B} 엄중한 표현인 ἀμὴν λέγω ὑμῖν은 다른 곳에서 항상 도입 문구였으며 조건절이 먼저 인도된 경우가 결코 없었기 때문에 관유적인 표현인 "Ἔχετε πίστιν θεοῦ가 원문으로 생각되며 εἰ에 의해 제시된 독법(א, D, Θ, f^{13}, 28, al)은 눅17:6에 있는 말씀(참조, 마21:21)에 따라 동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간주된다.

11:24 ἐλάβετε {A} 예언적인 완료(미래의 실행에 대한 확실성을 표현한)의 셈어적(Semitic) 관용법을 나타내는 단순과거(aorist) 시제는 너무 대담한 것처럼 보여서 현재 시제(λαμβάνετε)나 아니면 마21:22에 있는 평행구절에 영향을 받아 미래 시제(λήμψεσθε)로 변경되었다.

11:26 절을 인정하지 않음 {A}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에 이 문장이 우연하게 탈락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본문 계열을 대표하는 초기 증거 자료들에 이 문장이 없다는 사실은 필경사들이 마6:15을 모방해서 삽입시켜 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1:31 λέγοντες {C} τί εἴπωμεν이 우연하

게 (ἐὰν εἴπωμεν이 곧 뒤따라 나온다)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위원회는 짧은 독법을 지지하는 증거들이 다양하고 오래된 것들이라는 사실에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구절은 서방 본문(그리고 가이사랴 본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인 구어체적인 첨가문이라고 판단했다.

11:32 εἶχον {B} 독법 ᾔδεισαν (D, W, Θ, 565, al)과 οἴδασι (700)은 아마도 좀더 관용적인 용어인 ἔχειν("보며, 여기며") 대신에 쓰인 구어체적인 용어들일 것이다.

12:23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 [, ὅταν ἀναστῶσιν,] {D} 독법 ὅταν ἀναστῶσιν이 א, B, C*, D, L, W, Δ, Ψ, al 등에 없는 것은 필경사들이 중복되는 문구로 여겨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단어들이 없는 것은 아마도 이런 같은 이유로 삭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삭제시킨 고의적으로 발생한 탈락일 것이다. 어떤 필경사가 ἐν τῇ ἀναστάσει에 수식을 달려고 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런 중복 표현은 마가의 문체(참조, 13:19이하)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단어들이 없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위원회는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23절이 질문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필경사들은 여러 증거 자료들의 다양한 위치에 οὖν을 삽입시켰다.

12:36 ὑποκάτω {C} 마태복음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본문으로 선택된 평행본문(22:44)은 70인역(LXX)에 있는 ὑποπόδιον 대신 마가복음에 있는 대용단어 ὑποκάτω (B, D^gr, Ψ, 28, syr^s, cop^sa,bo, al)를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70인역 독법은 눅 20:43과 행 2:35에서 인용되었기 때문에 필경사들은 마가복음원문에 있는 독법을 "정확한" 독법으로 바꾸려고 했을 것이다.

12:40 τῶν χηρῶν {A} καὶ ὀρφανῶν 이란 단어들(D, W, f^13, 28, 565, al)은 원문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단어들이 생략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경사들이 καὶ ὀρφανῶν을 첨가시킴으로 χηρῶν을 확대시켰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쉽다.

12:41 καθίσας κατέναντι τοῦ γαζοφυλακίου {B}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법은 원문에 있는 ℵ, L, Δ, 892, it^a,k, al 등에 보존되어 있는 독법이다. ὁ Ἰησοῦς란 단어를 생략시켰다기 보다는 주어를 명확하게 규명해주기 위하여 이 단어를 필경사들이 원문에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크다. 마가는 다른 곳에서 ἀπέναντι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κατέναντι (11:2; 13:3)를 사용했다. W, Θ, f^1, f^13, 28, 565, al 등의 필경사들은 예수가 성전에 앉기보다는 서 있는 (ἑστώς) 것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13:2 ὧδε λίθος ἐπὶ λίθον {B} 앞으로

적인 사본 증거(א, B, L, W, Δ, Θ, Ψ, f^1, f^{13}, 28, 33, 700, al)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ὧδε λίθος ἐπὶ λίθον을 선택했다.

13:8 ἔσονται λιμοί {B} 원문에 있는 καὶ ταραχαί란 단어들이 이어지는 단어 ἀρχή와 약간 유사하기 때문에 사본 작업시에 탈락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러 필경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시킨 본문의 한 예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

13:22 δώσουσιν {B} δώσουσιν은 마태의 평행본문(24:24)에 따라 동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위원회는 ποιήσουσιν (D, K, Θ, f^{13}, 28, 565, al)을 διδόναι와 함께 쓰는 좀더 셈어적(Semitic)인 관용어 대신에 필경사가 제시한 대용어라고 간주했다.

13:33 ἀγρυπνεῖτε {C} 위원회는 καὶ προσεύχεσθε란 독법을 (아마 14:38에서 파생된) 자연스러운 첨가문으로 간주했다. 여러 필경사들이 이 단어들을 서로 따로 독립되게 만들었을 것이다. 만일 이 단어들이 원문에 있었다면 B, D, $it^{a,c,d,k}$, cop^{fay} 등에 이 단어들이 생략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14:4 ἦσαν δέ τινες ἀγανακτοῦντες πρὸς ἑαυτούς {C} οἱ δὲ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διεπονοῦντο καὶ ἔλεγον (D, Θ, 565, al)이란 독법이 갖는 복수적인 성격은 마가의 전형적인 표현인 부정대명사 주어 τινες를

마태적인 표현인 οἱ μαθηταί (마 26:8) 에 동화시켰다는 사실과 ἀγανακτεῖν (이 단어는 막 10:14, 41에서도 나타난다) 대신에 비마가적인 (non-Markan) διαπονεῖσθαι 를 대용해서 썼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난다. 필경사들에 의한 다른 변경문구들 중에는 πρὸς ἑαυτούς 앞이나 뒤에 καὶ λέγοντες 를 삽입시킨 독법도 있고 사본 W, f13, al 등에서 볼 수 있는 이문융합(異文融合: Conflation)시킨 독법 (.. ..τινες τῶν μαθητῶν) 도 있다.

14:5 ἐπάνω {B} 독법 ἐπάνω 는 네로(Nero) 시대 이후에 통화 가치의 하락을 반영하고 있는 고세기 첨가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만일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단어가 없는 짧은 독법이 원문임을 입증하는 후기 희랍어 증거보다는 오히려 초기의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필경사들과 성서 번역가들이 ἐπάνω의 구어체적인 용법 (Blass-Debrunner-Funk 의 § 185를 보라)을 반대했거나 아니면 이 단어가 없는 요 12:5의 평행적인 본문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생략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있다.

14:10 Ἰσκαριώθ {B} 적절한 명칭에 대해서는 막 10:4의 주석을 참조하라. 필경사들이 원문에 있던 정관사를 삭제했다고 보기 보다는 원문에 그 관사를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있다. 알렉산드리아 계열(א*, B)과 서방 계열(D) 등의 대표적인 초기 본문들은 28, 1071, 1365, 1646, al 등과 같이 관사 없는 이름을 입증해주고 있다.

14:20 εἰς τὸ τρύβλιον {B} ἓν과 함께 쓴 독법은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26:23)에 동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거나 아니면 분사와 함께 쓰는 ἓν에 동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εἰς τὸ ἓν τρύβλιον("같은 그릇에")이란 독법은 그 행위의 비열함을 강조하는 구절로서 원 본문을 부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것 같다.

14:24 τῆς διαθήκης {B} καινῆς란 단어는 원문에 있던 단어로 א, B, C, L, Θ, Ψ, 565, it^{k}, $cop^{sa^{ms}, bo}$, geo^{1} 등에서 삭제되었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눅22:20과 고전11:25에 있는 평행적 본문에 따라 필경사가 원문에 첨가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욱 가능성이 크다.

14:25 οὐκέτι οὐ μὴ πίω {C} א, C, L, W, al 등에 οὐκέτι가 없는 것은 마태의 평행본문(26:29)에 따라 필경사가 동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D, Θ, 565 등에 있는 προστιθέναι란 동사는 셈어적(Semitic)인 영향(70인역에서 부정사와 함께 쓰인 προσέθετο는 부정사와 함께 쓰인 הוֹסִיף를 번역한 것이다)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세 독법들 중 어느 하나도 원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입증되고 있지 못하다.

14:30 σήμερον {B} 중복되는 단어 σήμερον은 마가의 전형적인 표현으로 여러 서방 본문들과 가이사랴 본문들(D, Θ, f^{13}, 565, 700, al)에서 삭제되었다. 아마 마26:34에 있는 평행본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14:30 ἢ δὶς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C}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A, B, L, Δ, Ψ, f^1, 28, al 등에 있는 독법인 것 같다. δίς가 탈락된 것은 필경사가 다른 평행본문들(마26:34; 눅22:34; 요13:38)에 동화시켰기 때문에 생겨난 것 같다. 막14:68과 72절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라.

14:39 τὸν αὐτὸν λόγον εἰπών {A} 이 단어들은 서방 계열 본문을 제외하고 모든 계열의 본문 형태 속으로 들어오게 된 주석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본 작업 과정에서 필경사가 우연하게 삭제시켰을 가능성이 더 크다 (아마 이 단어들은 Bezae 사본의 원조가 되는 본문의 한 구절이었을 것이다).

14:41 ἀπέχει· ἦλθεν {B} 문맥에서 ἀπέχει의 비인칭적인 용법을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은 필경사들로 하여금 개선된 단어로 바꾸게 했다. 서방 계열과 가이사랴 계열의 여러 증거 자료들(D, W, Θ, f^{13}을 포함하여)은 눅22:37에 따라 제시된 것일 수 있는 주석인 τὸ τέλος (아마도 "마지막이 되었다"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를 첨가시켰다. 소수의 증거 자료들(Ψ, 892, al 등을 포함하여)은 ἀπέχει를 생략시켰다. 그리고 it^k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다시 썼다: et venit tertio et ubi adoravit dicit illis: dormite jam nunc, ecce appropinquavit qui me tradit. Et post pusillum excitavit illos

et dixit : jam hora est, ecce traditur filius hominis ...("그리고 그가 세번째 왔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후에 그는 그들에게 '지금은 자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고 말한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을 깨웠다 그리고 '지금이 그 때이다 보라 인자가 팔리우니라' 라고 말했다")

14:52 γυμνὸς ἔφυγεν {C}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법이 ℵ, B, C 등에 보존되어 있다. 이 독법에 있는 어순은 대부분 다른 증거 자료들(A, D^gr, W, Θ, f^1, f^13, 28, 565, 700, al 등을 포함하여)에 의해 입증된다. ἀπ' αὐτῶν 의 첨가는 κρατοῦσιν의 언급하지 않은 주어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확대이다

14:60 τί {B} τί의 생략적인 용법(= τί ἐστιν ὅ, "이 사람들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은 여러 필경사들로 하여금 ὅτι로 바꾸게 했던 것 같다.

14:65 προφήτευσον {C} 도입 단어 Χριστέ와 함께 쓰이기도 했고 또는 이 단어 없이 쓰이기도 했던 τίς ἐστιν ὁ παίσας σε; ("누가 당신을 때렸습니까?")란 의문문이 첨가된 긴 독법은 마태의 본문(26:68)이나 누가의 본문(22:64)에 동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알렉산드리아 계열 본문과 여러 초기 번역본들에 의해 입증되는 가장 짧은 독법 προφήτευσον은 다른 독법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14:68 [καὶ ἀλέκτωρ ἐφώνησεν] {D} 이 단어들이 원문에 첨가된 것들인지 아니면 원문에서 탈락된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 단어들은 첨가된 것들이라고 설명하기는 쉽다. 즉 필경사들이 30절에 있는 예수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들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아마 필경사들은 베드로가 첫번째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그 닭울음 소리가 두번째였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했을 것이다). 또한 이 단어들이 탈락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쉽다. 즉 필경사들이 닭울음 소리가 단지 한번 밖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세 복음서들의 내용에 따라 두번 닭울음 소리가 두번 언급된 마가복음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했다(아마 필경사들은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를 들었다면 왜 즉시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물었을 것이다).

각각 독법들이 우세한 외적 증거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서로 상충되는 가능성들 때문에 위원회는 최선의 해결 방법은 이 단어들을 본문에 두되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14:72 ἐκ δευτέρου {C} 여러 증거 자료들은 ἐκ δευτέρου (ℵ, C*vid, L, it^c, Diatessaron^{i,s})란 단어들이 없다. 아마도 이 마가 본문을 다른 복음서들(마 26:74; 눅 22:60; 요 18:27)과 일치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삭제시킨 것 같다. 14:68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라.

14:72 ὅτι πρὶν ἀλέκτορα φωνῆσαι δὶς τρίς με ἀπαρνήσῃ {B} 다른 독법들의 기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독법은 C², L, Ψ, 892, al 등에 의해 지지받는 독법이며 이 증거 사본들 안에서 δίς와 τρίς는 나란히 제시되었다. 필경사들이 문체를 매끄럽게 하고 좋은 음조(音調)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 두 부사들 중 하나를 옮기거나, 아니면 두 번 닭 울음 소리에 관한 구절인 30절과 68절에서 고려했던 것과 같은 생각으로 δίς를 생략시켜 버렸다(30절과 68절에 관한 주석을 참조하라).

14:72 καὶ ἐπιβαλὼν ἔκλαιεν {B} ἐπιβαλὼν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난해함은 D, Θ, 565, Old Latin, al 등을 포함하여 서방 계열과 가이사랴 계열의 여러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필경사들로 하여금 이 단어를 ἤρξατο로 바꾸게 했다. 소수의 증거 자료들(ℵ*, A*vid, C)에 있는 미완료(imperfect) 시제로 된 단어(ἔκλαιεν)는 평행본문들(마26:75와 눅22:62)에 있는 단순과거(aorist)로 된 단어(ἔκλαυσεν)에 동화된 것이다.

15:1 ποιήσαντες ... δήσαντες {B} 한정 동사(finite verb; ἐποίησαν)를 분사 대신 사용하고 δήσαντες 앞에 καί를 삽입시킨 서방 계열과 가이사랴 계열의 어떤 증거 자료들(D, Θ, 565, Old Latin 등을 포함하여)의 독법은 문체적으로 손질한 것이 분명하다. συμβούλιον ποιεῖν 란 표현이 "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하는 것",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소수의 증거 자료들(א, C, L, 892)은 독자들에게 후자의 의미를 뜻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συμβούλιον ἑτοιμάσαντες란 표현을 택했다(왜냐하면 14:55-65은 회의가 이미 소집되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15:8 ἀναβὰς ὁ ὄχλος {B} ἀναβοᾶν과 ἀναβῆναι란 동사들은 사본들 가운데서 혼동되기 쉬운 것들이었다(참조, 삼하23:9과 왕하3:21과 호8:9에 대한 70인역 본문). 마가복음에는 ἀναβοᾶν이란 단어는 다른 곳에서 전혀 언급된 적이 없으며 ἀναβαίνειν은 9회나 언급되었다. ἀναβάς(빌라도의 숙소가 안토니아의 탑<Tower of Antonia> 안에 있었다면 특별히 적절한 동사)를 지지하는 외적 증거는 강력하다(א*, B, D, 892, 대부분 Old Latin, vg, cop$^{sa, bo}$, goth)

소수의 증거 자료들에 ὅλος의 삽입은 이 이야기를 극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는 관심 때문에 생겨났다.

15:10 οἱ ἀρχιερεῖς {B} οἱ δὲ ἀρχιερεῖς란 구절이 11절에서 곧 이어서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여러 증거 자료들에서 οἱ ἀρχιερεῖς가 없는 것은 문체적으로 손질을 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마도 마27:18에 있는 평행 본문을 기억하고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다.

15:12 [θέλετε] ποιήσω {D} 마27:22과 일치

하고 있는 짧은 독법(א, B, C, W, Δ, Ψ, f^{1}, f^{13}, al 등에 의해 입증되는 독법)이 부수적인 독법인지, 아니면 9절이나 마27:21이나 눅23:20에 동화시키기 위해 θέλετε를 원문에 삽입시킨 것인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막10:36과도 비교해 보라). 대체로 위원회는 θέλετε를 본문에 두되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15:12 [ὃν λέγετε] {C} ὃν λέγετε가 없는 독법을 지지하는 강력한 외적 증거가 있지만 τὸν λεγόμενον Χριστόν(마27:22)이란 마태의 독법은 마가복음에 있는 ὃν λέγετε의 원문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이 구절이 삽입된 것은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제시한 필경사의 수정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사본 B의 독특한 독법은 ὃν이 우연하게 탈락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는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단어를 본문에 두되 이 단어들이 원문에 있었는지 의심이 남아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괄호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15:25 τρίτη 요19:14과 일치되게 하려고 소수의 증거 자료들은 τρίτη 대신 ἕκτη(Θ, 478*, syr^{hmg}, eth)로 읽는다. 여러 교부 작가들의 제안에 의하면 τρίτη는 F(=6)와 Γ(=3) 사이의 혼동 때문에 생겨났다(요19:14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라)

15:25 καὶ ἐσταύρωσαν {A} 회람이 문체를 더

욱 좋게 하기 위해 소수의 필경사들은 마가의 병렬적 구문("그리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다")을 좀더 관용적인 종속 구문("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을 때")으로 변경시켰다. 서방 계열의 여러 증거 자료들에 있는 동사 ἐφύλασσον은 마가의 중복되는 표현(καὶ σταυροῦσιν αὐτόν, 24절)을 피하려는 의도로 마태의 설명(마 27:36)과 일치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15:27 Old Latin 사본(Colbertinus(it^c))는 두 강도들의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예수의 오른편에 있던 사람은 nomine Zoathan 이라고 했고 왼편에 있던 사람은 nomine Chammatha 라고 했다(마 27:38과 눅 23:32의 주석을 참조하라).

15:28 절을 인정하지 않음 {A}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서방 계열의 본문들 중에서 가장 초기에 속하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증거 자료들에는 28절이 없다. 필경사들이 눅 22:37에 따라서 난외에 그 문장을 첨가시켰~~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다가 그 문장이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이 문장이 원문이었다면 이 문장이 생략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마가는 유별나게 구약성서를 거의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사실이다.

15:34 ελωι ε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사본 D, Θ, (059 ελει), 0192, (131 ηλι), 565, al 등에 있는 ηλει ηλει 란 독법은 히브리어 אלי ("나의 하나님")를

음역한 것으로서 마태복음에 있는 평행본문(27:46)에 동화되었다. 대다수의 대문자 사본들과 소문자 사본들은 ελωι ελωι로 읽는다. 이 단어들은 아람어 אֱלָהִי ("나의 하나님")를 음역한 것으로 여기서 α 소리 대신 ω 소리는 히브리어 אֱלֹהַ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철자법이 λεμα (ℵ, C, L, Δ, Ψ, 72, 495, 517, 579, 1342, 1675, al)인 단어는 아람어 לְמָה ("왜?")를 음역한 것이며, λιμα (A, K, M, P, U, X, Γ, Π, f^{13}, 33, 106, 118, 131, 209, 543, 697, 700, 1270, al)를 설명해줄 수 있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λαμα (B, D, N, Θ, Σ, 1, 22, 565, 1295, 1582, al)는 히브리어 לָמָּה ("왜?")를 음역한 것이다.

Bezae 사본만 제외하고 모든 희랍어 사본들은 σαβαχθανι나 아니면 이와 유사한 단어들(σιβακθανει, A; ζαβαφθανει, B; σαβαχθανει, C, al)로 기록하고 있다. 이 단어들은 아람어 שְׁבַקְתַּנִי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를 음역한 것이다. D의 독법 ζαφθανι (it^{d}는 zapthani; it^{k}는 zaphani; it^{ff2}는 sapthani; it^{i*}는 izpthani)는 시 22:1에 있는 히브리어 עֲזַבְתָּנִי ("당신은 나를 버리셨습니다")를 음역한 학구적인 교정이다.

그래서 위원회가 선정한 본문에 있는 이 구절은 전체가 아람어 원문을 음역한 것이다. 반면에 마태의 평행본문은 일부분은 히브리어이고 일부분은 아람어이다(마 27:46에 대한 주석을 보라)

15:34 ἐγκατέλιπές με {B} 필경사들이 με

ἐγκατέλιπες를 70인역의 시22:2 본문과 일치시키기 위해 ἐγκατέλιπές με로 변경시켰다고 보는 것보다는, ἐγκατέλιπές με를 마태적인 독법인 με ἐγκατέλιπες(마27:46)과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시켰다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

D^gr의 독법(소수의 다른 서방 증거 자료들에 의해 지지받고 있음) ὠνείδισάς με ("<왜> 당신은 나를 책망하셨습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 상에 있는 예수를 버릴 수 있는가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필경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법 대신 사용한 구절일 것이다.

15:39 ἐξ ἐναντίας αὐτοῦ {B} 아마도 문제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증거 자료들은 생략 구문인 ἐξ ἐναντίας αὐτοῦ 위치에 αὐτῷ (W, f¹, al)나 ἐκεῖ (D, Θ, al)로 대치시킴으로 이 구절을 변경시켰다.

15:39 ὅτι οὕτως ἐξέπνευσεν {C} 비록 κράξας나 또는 이와 유사한 단어가 포함된 증거 자료들이 다양하고 폭넓게 퍼져 있지만, 반면에 이 단어가 빠진 증거 자료들은 주로 한 본문 계열(알렉산드리아)의 증거 자료들이다. 위원회는 짧은 독법을 선택했으며, 본서는 마27:50에 따라 초기에 삽입시킨 것으로 간주했다.

15:44 εἰ πάλαι {C} 비록 πάλαι란 독법이 그 문장에서 ἤδη의 반복 사용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할 수도 있지만, πάλαι가 문맥에서 어느 정도 부적합하다

고 는편 필경사들이 이 단어를 ἤδη로 바꾸어 사용함으로 문장을 고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크다. ἤδη로 읽고 있는 여러 사본들(D, W, Θ 등을 포함하여)은 또한 ἀπέθανεν을 완료 시제(perfect tense)로 변경시켰다.

16:1 διαγενομένου τοῦ σαββάτου ... καὶ Σαλώμη {A} 두 여인 ~~이름을~~ (앞 문장에서 밝혀진 사람들)의 이름이 D, it^k 에 없는 것은 ~~이유는~~ 문장을 단순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남에 대한 언급이 D, it^{d, n} 에 없는 것은 ~~이유는~~ 향품을 구입한 날이 금요일이었다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눅23:56처럼). 다른 모든 증거 자료들의 압도적인 입증은 위원회가 채택한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16:4 4절 시작 부분에서 Old Latin 사본 Bobiensis (it^k)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부활을 묘사하고 있다. 한 두 위치에서 이 주석문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수정문들이 제시되어 있다: *Sabito autem ad horam tertiam tenebrae diei factae sunt per totam orbem terrae, et descenderunt de caelis angeli et surgent [surgentes?; surgente eo? surgit?] in claritate vini Dei [viri duo? + et?] simul ascenderunt cum eo; et continuo lux facta est. Tunc illae accesserunt ad monimentum* ... ("그러나 갑자기 그날 세 시에 땅 전체를 덮는 어두움이 있었다 그리고 천

이탤릭체

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께서] 일어나고 있을 때(surgente eo 독법)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곧 그것은 빛이었다. 그때에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문맥상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정문 viri duo는 큰 광명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무덤에서 데리고 간 두 사람에 대한 베드로 복음서(Gospel of Peter)의 설명을 보고 제안한 것이다: “그 두 사람들의 머리는 하늘에 닿았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의 머리는 하늘들을 넘어섰다”(sects. 35-40)

16:9-20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 마가복음의 결말 부분은 사본들에서 네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다.

(1) 일반적으로 마가의 본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열두 절들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에는 빠져있다: Old Latin 사본 Bobiensis(it[k]), 가장 오래된 두 개의 고지아(Georgian) 사본들(주후 897년과 913년에 기록됨).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오리겐(Origen)은 이 절들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유세비우스(Eusebius)와 제롬(Jerome)은 그들에게 알려졌던 마가복음에 대한 거의 모든 희랍어 사본들에 이 절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Ammonius에 의해 작성된) 유세비우스의(Eusebian) 항(項)에 대한 원문에는 16:8 이후에 절 번호를 매긴 항들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 절들을 포함시킨 적지 않은 사본들은 더 오래된 희랍어 사본들에는 이 절들

이 없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필경사의 각주가 들어 있다. 그리고 다른 증거 자료들은 이 절들에 별표(*)나 단검표(†)나 필경사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했던 부호들로 표시를 해 둠으로 이 절들이 의심이 가는 구절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2) 7세기, 8세기, 9세기 경의 것들로 추정되는 네 개의 희랍어 대문자 사본들(L, Ψ, 099, 0112), Old Latin k, 하클린(Harclean) 시리아역, 사히딕(Sahidic)과 보하이릭(Bohairic)에 속하는 여러 사본들 등을 포함하여 여러 증거 자료들에는 8절 이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사소한 차이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단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자신은 그들을 통해 거룩하고 멸망치 않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선포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전파하였다" it^k를 제외하고 이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증거 자료들은 9-20절도 포함시키고 있다.

(3) 흠정역(AV)이나 Textus Receptus의 다른 번역본들을 통하여 이미 친숙해져 있는 전통적인 마가의 결말 부분은 A, C, D, K, X, W, Δ, Θ, Π, Ψ, 099, 0112, f^{13}, 28, 33, al 등을 포함하여 상당한 수의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다. 긴 결말 부분 전체나 또는 일부분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초기의 교부 증거 자료들은 이레네우스(Irenaeus)와 Diatessaron이다. 저스틴(Justin Martyr)이 이 구절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의 Apology(I. 45)

에 보면 이순은 틀리지만 20절에 있는 다섯 단어들을 사용했다(τοῦ λόγου τοῦ ἰσχυροῦ ὃν ἀπὸ Ἰερουσαλὴμ οἱ ἀπόστολοι αὐτοῦ ἐξελθόντες πανταχοῦ ἐκήρξαν).

(4) 제롬(Jerome)에 의해 보존된 증거에 의하면 4 세기 경에 이 전통적인 결말 부분은 한 희랍어 사본 안에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확대된 형태로 회람되었었다. 워싱톤(Washingtonianus) 사본은 14절 이후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책망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불법과 불신의 세대는 사탄 아래 있습니다. 그 사탄은 영들의 부정한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이해하려면 그 더러운 영들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의를 드러내소서'"라고 했다. 그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사탄의 권세의 기간이 끝났다. 그러나 다른 무서운 것들이 가까왔다. 그리고 나는 죄진 자들을 위해 그들이 진리로 돌아와 더이상 죄짓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적이며 썩지 아니할 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죽음에 넘겨졌다.

위와 같은 결말 부분들을 각각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긴 결말 부분에다 확대시켜 놓은 형태는 원문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4)의 결말 부분은 외적 증거가 극도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확대문에는 비마가적(non-Markan)인 단어들과 표현들(ὁ αἰὼν οὗτο

s, ἁμαρτάνω, ἀπολογέω, ἀληθινός, ὑποστρέφω 등을 포함하여) 외에도 신약성서 어느 곳에서도 전혀 볼 수 없는 여러 단어들(δεινός, ὅρος, προλέγω)이 들어있다. 확대문은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외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들은 아마 16:14에서 열한 제자들을 향해 심하게 꾸짖으심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2, 3 세기의 필경사들의 작품으로 생각된다.

(3)의 긴 독법은 몇몇 고대 자료도 포함하여 다양한 증거 자료들에서 볼 수 있지만, 내적 증거에 의해 부수적인 독법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a) 9-20절의 어휘와 문체는 비마가적(non-Markan)이다(예를 들면 ἀπιστέω, βλάπτω, βεβαιόω, ἐπακολουθέω, θεάομαι, μετὰ ταῦτα, πορεύομαι, συνεργέω, ὕστερον 등은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제자들에 대한 칭호들로 θανάσιμον과 τοῖς μετ' αὐτοῦ γενομένοις는 신약성서에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b) 8절과 9-20절 사이의 연결이 너무 어색하여 마가복음 기자가 이 단락을 마가복음의 연속되는 부분으로 구성시켰다고 믿기가 어렵다. 8절의 주어는 여자들이다. 반면에 9절에서 추정되는 주어는 예수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앞에서는 (15:47과 16:1) 간단하게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를 다시 밝히고 있다. 1-8절에 있는 다른 여인들이 이 부분에서는 잊혀졌다. ἀναστὰς δέ의 사용과 πρῶτον의 위치는 이야기 시작부분

으로 적당하다. 그러나 1-8절의 연속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어울리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런 특징들은 모두 마가복음이 8절에서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을 알고는 좀더 적절한 결말 부분을 제시하기 원했던 사람에 의해 첨가된 단락임을 가리킨다. 1-8절과 9-20절 사이의 부조화를 볼 때 그 긴 독법은 분명한 틈을 채우기 위해 이 위치에 (ad hoc)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단락은 아마 2세기 초엽인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짧은 독법 (2)에 대한 내적 증거는 이 독법의 원문성을 결정적으로 반대한다. 비마가적(non-Markan)인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이 독법의 수사적 어조(rhetorical tone)가 마가복음의 단순한 문체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끝으로 (2)의 독법을 지지하는 외적 증거는 결과적으로 9-20절들이 없었다는 것을 지지하는 보조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마가복음의 결론으로 관심이 가는 자료가 풍부한 9-20절 열두 절들을 사용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절들 대신에 특색이 없고 일반적인 네 줄로 된 요약문으로 대치시킬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2)를 지지하는 증거 자료는 (1)을 지지하는 데로 첨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외적 증거와 강력한 내적 고찰에 근거하여 마가복음의 가장 초기 형태로 확인되는 것은 16:8로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긴 독법이 분명히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과 마가복

음의 본문 전승에서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존중하여 위원회는 9-20절들을 본문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이 마가복음 기자보다는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중 괄호로 묶어 두었다.

막16:9-20 내에 있는 이문 독법 16:9-20에 있는 단락은 보통 본문 형태를 유명해주는 초기에 속하는 탁월한 사본들에는 없기 때문에 선정해야 할 독법들 가운데 결정을 내리기가 항상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성에 대한 여러 표시들({A}, {B}, {C})은 9-20절 전체에 대한 우선적인 결정의 틀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16:14 ἐγηγερμένον {A} ἐκ νεκρῶν은 여러 필경사들이 ἐγηγερμένον 뒤에 첨가시키고자 했으며 아무도 고의로 삭제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자연스러운 확대문이다.

16:14-15 ἐπίστευσαν.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A} W에 보존되어 있는 첨가문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9-20절들에 대한 주석의 단락 (4)를 참조하라.

16:17 λαλήσουσιν καιναῖς {B} καιναῖς는 καινὴ διαθήκη와 καινὸς ἄνθρωπος를 모방하여 첨가시켰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καὶ ἐν ταῖς[즉 καὶν ταῖς]와의 유사문미(類似文尾: Homoeoteleuton) 때문에 이 단어가 여러 증거 자료들에서 삭제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

능성이 크다.

16:18 [καὶ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ὄφεις {C}

καὶ ἐν ταῖς χερσὶν 이란 표현이 행28:3-6에 있는 설명을 모방하여 첨가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원회의 대다수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증거 자료들을 따르기로 했다. 동시에 A, D[supp], W, Θ, Π, f^{13}, 28, 700, it[c,d supp,l,o,q], vg, syr[p,pal], al 등과 같은 증거 자료들에 이 단어들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줄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단어들을 괄호로 묶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6:19 κύριος Ἰησοῦς {C} 교회가 예수에게 적용한 여러 칭호들 중에 κύριος 만 단독으로 사용한 것은 후대에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된다. 이 표현은 κύριος Ἰησοῦς 보다 더욱 위엄있는 표현이다.

16:20 σημείων. {B} 대부분의 증거 자료들에 ἀμήν이 첨가된 것에 대해서는 마28:20에 대한 주석들을 참조하라.

더욱 짧은 결말 부분

이 짧은 결말 부분에 대한 논의는 위에 있는 9-20절들에 대한 주석에서 단락 (2)를 참조하라. 독법 Ἰησοῦς는 자연스러운 확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독법들보다 더 원문에 가깝다. 처음부터 이 결말 부분은 결어 ἀμήν 이 있었는데, 사본 작업 과정에서 빠뜨렸거나 아니면 좀더 가능성있는 추정으로서 ἀμήν이 9-20절들이 이어

질 때 ἀμήν이 부적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 증거 자료들(L, $cop^{bo\ ms}$, $eth^{most\ mss}$)에서 삭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